

독신여성이 늘고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전
일에 더 큰 매력을 느껴 일을
선택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다보니 독신이라
고 외롭거나 주위의 시선에 신
경쓸 겨를이 없다는 오태숙씨
(37·세무회계사무장).

이처럼 ‘독신생활’을 자기 삶
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여성이
늘고있다.

박정희씨(30·대학원생)는
“남자를 사귀어본 경험은 있으
나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속감
까지는 생기지가 않아 아직 독
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정
말애드는 남자가 없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자기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독신여성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독신여성을 위한 토론회를 비
롯, 단체인수와 교육등의 프로
그램이 많이 생겨나고있다.

사실 ‘독신여성’이란 결혼을
하지않겠다는 의지로 혼자 사
는 사람을 말하지만 독신여성
들의 모임은 결혼했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혼자가 된 사람까
지를 포함하고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따
르면 우리나라 여성세대주가
20.1%로 늘어났다.

이같이 어떤 이유에서건 독
신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프
로그램의 참여도도 크게 늘고
있다. 독신여성들을 위한 프로
그램에는 가정법률상담소의
‘기러기교실’과 여성신문에서
진행하는 ‘독신여성교실’이 1



독신여성에게는 무엇보다도 건강과 경제자립능력이 절실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혼‘필수’아닌 ‘선택’인식 젊은층서 확산

독신도 삶의 건전한 형태...사회인식 변화되어야

“식욕부진·불면 자신감으로 대처토록”전문가조언

표적이다.

지난 84년 한국가정법률상담
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러기

교실’의 경우 매년 참석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태이다.
가정법률상담소에 근무하는

김경애씨는 “혼자사는 여성들
이 필요로 하는것은 취업입니
다. 물론 이들중에는 본인의
뜻과 맞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한 삶을 위해 이들을 위한 프
로그램이 더 필요합니다”고 말
한다.

또한 여성신문사 교육문화원
이 모체인 ‘한국여성한마음회’
는 국내 처음 선보인 독신여성
들만을 위한 민간단체로 각종
교육과 토론회, 집단연수, 취미
특기등에 따라 분류한 소그룹
활동, 소년가장돕기, 미혼·모자
세대의 권익보호사업, 공동구
매장운영등을 추진하고있다.

이모임의 회원인 이춘복씨
(43·홍익아프리에 원장)는 “서
로를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모
임을 가지다보니 정서적·정신
적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해소될

뿐더러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혼자 굳건하게 사는것을 보면
서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독신여성에게 무엇보다 절실
한 문제는 건강과 경제적 자립
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독
신여성의 경제능력을 더욱 압
박하는 요인중 하나는 세금납
부나 주택구입시 혜택이 전혀
없다는것이다.

독신여성으로 집에서 분가하
고자 한다는 김민희씨(34)는
“여성단체세대의 경우 아파트
청약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아
파트분양에 당첨되기 어렵다”
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
다.

조영환변호사는 현재 독신을
위해 독립된 법규는 전혀없는
상태라며 독신도 건전한 삶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신여성뿐아니라 독신자의
경우도 아플때는 혼자구나싶고
외로워지기도 한다고

이같은 문제로 초조감, 식욕
부진, 불면증, 짜증감등이 생겨
신경정신과를 찾는 경우도 있
다.

국립의료원정신과 김현우과
장은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
해 긍지를 갖고 생활한다면 어
느누구보다도 자신감 넘치는
생활을 할수있다”며 보람을 느
낄수 있는 일에 자신을 몰두할
것을 권했다.

독신여성들이 무엇보다 바라

고 있는 것은 ‘독신여성’이라고
굳이 구별지어 생각하는 사회
인식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형태는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독신여
성’도 삶의 한 형태로 인정하
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것이
자신들이 곳곳하게 살도록 도
와주는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이효재
회장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줄어드는 대신 사회와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할때 독신여성
들의 위상이 바르게 정립될것”
이라고 강조했다.

민족공동체외척과 역사의식
을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것
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자기
가 맡은 일을 통해 사회에 이
바치해야할것이라는 지적이다.